부처님 따로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어

☞ 19면에서 계속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도 부처님이 아주 거룩하셔서 저렇게 앉아 계시다가도 벌판에 나가는 수도 있거든요. 못 보셨죠. 정말입니다. 저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가 안양에도 갔다 오셨는데요. 그런데 사람 모습이 바뀌졌으니까 누구든지 모르죠. 모습이 바뀌졌는데 어떻게 압니까. 애로 화하면 애인 줄 알고, 늙은이로 화하면 늙은인 줄 알고 빌빌한 처사라면은 처사로 알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크게 문제가 생긴 거를 꼭 해결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깐 부처님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아주 쪽히 여러분의 심부름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예전에도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똥 친 막대기라고 그랬거든요. 예전엔 막대기를 놓고 똥을 씻었었다나 봐요. 그렇게들 표현을, 참 무식하기도 하고 별나게들 했는데 그것이 정말 큰스님을 만들고 큰스님이 되시고 그랬다는 얘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자기불성 자력을 쓰라

그것을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오신날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냥 우리가 하는 거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 보다도 열심히 알아서 우리는 내면에 항상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내면의 자기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내 집 안에 전화통을 놓지 않으면은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화 할 수도 없다. 그와 같이 내면에 우리가 자기 자력을 쓸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정신계의 즉 자기니까. 자기를 모른 채 한다면 큰 일이 생겨도 그거는 들을 수가 없죠. 뜻이 나한테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이 어떡하나 보느라고 그것만 살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이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뚱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생으로 사는구나. 한 치도 세포의 하나도 생명체가 떨어져서 사는 법이 없구나. 공체로구나. 공심이로구나. 공심이니깐 공용을 하고 살지 않나. 병이 나면 바로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의사가 나와서 진찰을 하고, 진찰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뭡니까. 수술을 하고 이래도 되는 건데. 아마 예전 신도들은 많이 그 뜻을 알 거예요. 자기가 많이 해 봤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원의 연구원들이 그것을 뚫어서 지금 현대의 박사님들이 하고 계신 거, 또 자연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내면에 바로 의사 박사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간호사도 있고요. 여러분의 내면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모두 말로 할 수 없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은 스님이 별 말 안하고 그냥 시시껄렁하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별 말 아니지만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모든 거를 완화시키고, 모든 거를 해결하고, 모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만 괜찮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만이 무사히 없어지고, 고라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어떻게 해야 그 고, 업이 안 생기나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업보니 유전성이니 영계성이니 하는 문제들이 모두 생기는 거죠. 종교도 잘못 믿으면은 의식이 잘못돼서 말도 안하고 방에만 들어앉아서 병이 생기고 그러다가 미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못 키우고, 키웠다가도 못 쓰게 만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 한 집에서 그런 거 하나를 해결해도 이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 삶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걷고 자기가 자기 정신계의 자기 한테 관해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데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고, 자기는 부지런히 살고, 빙긋이 웃고 사는 거죠. 이 모습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생인데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얕아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원대로에, 또 산 것 대로에, 또 재생할 때는 산 것대로 차원이든지 삶이든지 생김생김이든지 모든 거를 가지고 나가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공부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못생겼으니깐 조금 더 잘 생긴 거는 바라지 않아도 그저 밉지 않게 생겨서 좀 마음이 너그럽고 똑똑해서 남한테 해로움을 주지 않고 나를 해로움을 주지 않고, 이 모습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고 진짜 자기의 시자입니다. 모습 즉 말하자면 심부름꾼이죠. 모습, 몸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라는 거를 꼭 믿고 그렇게 하세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고 하기 싫어도 당신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한다면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다면 보이지 않는데서 해결이 다 돼서 보이는 데에서 해결이 나게끔 되는 거죠. 오늘은 사는 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을 하고 산다고요. 우리는 공법에서 만법을 들이고 어떠한 문제든지 들이고 내고 살아도 걸림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꼭 생각하셔서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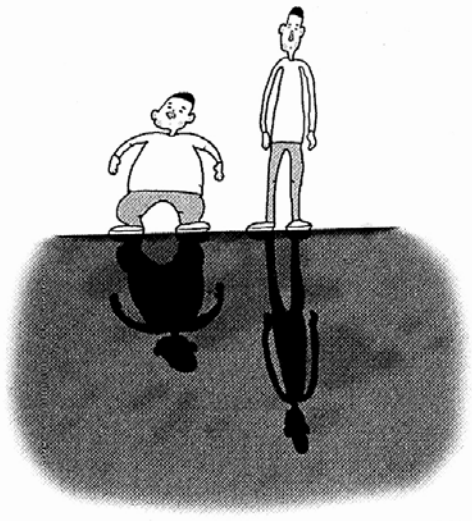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마음공부는
좀 너그럽고 똑똑해서
남한테 해로움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도 해를 주지 않으며
진짜 주인공인 정신계
나 믿고 사는 것

공용 공심 공체로 살아

그러고 요즘 병원에 갔던 사람들이 다들 오히려 더, 난 이런 소리 안 했는데요. 요즘 아주 엉망으로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수술을 하려고 갈라보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꿰매어 놨는데 수술하려고 갈랐을 때 잘못 건드려서는 오히려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것이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픈 사람한테만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약한 대로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일들이 허다많습니다. 그걸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애들은 많이 낳아 놨는데 엄마가 죽게 됐는데 아버지도 죽게 됐더라고요. 그러니 애들은 애들대로 고아원으로 다 가야죠.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 병원에도 맘을 놓고 갈 수가 없고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데 돈이 있어도 맘을 놓고 갈 수가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부해 보고 그래 가지고 경험을 얻어서 참 의사 박사님들이 유능했는데 지금은 그 병명을 알지 못해서 째어 보고 아는 분이 많이 있으시데요, 글쎄. 진찰을 해도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가 아프다니까 거기를 째 봐야 알겠다고 그런대니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떠한 몹쓸 병이 생겼더라도, 병이 들어서 다리도 못 쓰고, 팔도 못 쓰고, 속도 못 쓰고 그냥 엉망인데, 그런데 아들을 기르고 그러는데 참 그 돌아가셔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질질질 끌고 그냥 뭐 끄는 정도가 아니죠. 여기도, 스님들이 다 알지만 엊그저께 보니깐 참 잘 걸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생각에 보는 순간에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께서 내가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건 참 살아야겠구나. 넌 고생이 되도 좀 살아야 딴 사람들이 살지 않겠어 하고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돌봐지게끔 만들 수 있는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다 자불을 가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다 부처님입니다. 남들이 안 듣는데 그래요. 참 당신네들이 다 부처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앉아 계신 부처님 믿고 오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걸 믿지 못했거든요. 아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움죽거리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을 지을 량으로, 저 위에 한 채를 짓고 나서 이 법당을 지으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 공중에서, 이 소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일입니다. 이 소저 할머니가 자다가 꿈을 꾸니까 그냥 위에서 동자들, 부처님들이 쭉 내려오고 양사방으로는 비천상과 보살님들이 모두, 등 다는 날 입고 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입은 보살들이 큰 종이 꼬리표 하나씩을 들고는 모두 하늘에서 뿌리면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와서는 여기 쭉 그냥 앉았는데 거기가 공양간인데 그 공양간 옆에서 꼬리가 잘린 큰 구렁이가 나오는데 그 양반들이 그걸 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저 꼬리가 저렇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놔야지 되지 안되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틀고는 내려오더라는 거죠. 내려와서 거길 턱 자리를 잡고는 앉았는데 그 앉아있는 용이 옆에 있는 이그러진 꼬리를 손으로 붙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의가 벌어졌더래요. 이거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거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이 꿈을 깨고 그 날로 "스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절이 그냥 빨간 벽돌로다가 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면서 조그만 동자들도 많이 내려오고 그랬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 법당을 짓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걱정이 살아나가는 데 걱정이기 때문에 난 권선문을 만들어서 보시를 받으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전자부터 그런 일이 없었고요. 보시를 걷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하기도 하고, 없으면 고만이고요. 또 남한테 빌려 가지고 재사를 지내려 오면 그것처럼 안된 게 없어요. 그럼 어떤 때는 드리면서 도로 갖다 갚고 돈 생기면 하시라고 합니다. 지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조상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죠. 오늘은 그냥 시시껄렁하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걸림없는 한생각 묘법

시시껄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체라고 한 뜻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 생각을 해도 공용으로 생각을 한 거고 우리가 한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도 공용으로 한다는 거를 꼭 알고 자기의 주인공을 진짜로 자기 보디가드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심부름꾼으로 알아야 합니다. 참 자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그럼 오늘은 그냥 우리가, 극난한 사회의 모두 일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그걸 해 나가는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하시도록 하세요. 해결을 하시려고 한다면 모두 해결을 할 수 있죠. 빨라야 좋다 한다면 빠르게 하는 거고 좀 늦어야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다 이러면 좀 늦게 하는 거고 그것도 마음대로 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오늘 한마디도 안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한마디도 안하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께 말없이 그냥 무심으로서 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 마이크를 주네요.

그러면 제가 함이 없이 그냥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오늘 여러분한테 선물이라고 할까 살아나가는데 선물을 듬뿍 주시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걸림 없고 걸림 없이 소심스럽게 받지 마시고 오늘 한 생각을 그냥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2001년 5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에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 : 전화악속 10분소요
역곡 1호선 하차→남부역쪽 1번 출구 (기업은행 정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판검사, 의사, 변호사, 회사원, 공무원, 연구원, 변저 기업인, 사업인! 10년전행의 노하우 · 두은 단님 될때까지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백련 선원 입방공고

만덕산 백련선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무문관에서 동참 정진하실 재가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 기 간 : 5월 8일(음 4월 15일) - 6월 2일(음 윤달 4월 11일)
◆ 수행구분 : 3일정진, 5일정진, 7일정진
◆ 입방자격 : 참선 수행에 관심있는 남, 녀 재가불자
◆ 입방신청기간 : 각 기간별 선착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덕산 백련사 종무소에 연락바랍니다.

전화 : 061-432-0837
팩스 : 061-433-9929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11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만덕산 백련사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과 빛의 신령한 기운, 영묘한 기운」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3박4일 수행체험

7일, 15일, 30일, 49일, 108일 코스

▣ 한글 금강경 봉독 : 십일만천칠백번 독경하여 체득한 테크닉으로 신명나며 박력있고 리드미컬 하게 독송하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열리어 후련한 체험과 절대 각성 상태로 번뇌에 이끌리지 않게 됨을 알게 됩니다.
▣ 석가모니불 염불 : 단전이 풀리고 가슴이 열리고 허는 풀리어 통제 불능의 자동 염불이 저절로 끝없이 이어지는 가장쉽고 빠른 염불삼매의 지름길로 행주좌와 일여의 경지를 극복하게 됩니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 숨차고 헐덕대고 지치고 힘이 빠지고 몸살나는 절은 수행이 아닙니다.
2시간만 배우시면 절대 숨차지 않고 헐덕대지 않으며 삼천배를 하여도 지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대체의학임을 스스로 알게됩니다.
▣ 참선의 기초작법, 자동단전호흡법 : 배꼽아래 세치부분이 단전자리가 아님을 간단한 수련으로 단전이 열리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스스로 알게 됩니다.
▣ 부처님 공경, 참탄, 감사 수행 :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지어 팔자를 고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행으로 고마운 일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소원이 쉽게 성취됩니다.
▣ 상기병, 화병, 불면증 : 약 . 의술 필요없이 단기간 수행으로 저절로 쉽게 극복한 사례가 많으니 고치지도 못하는 의술에 매달려 시간, 돈 낭비하지말고 수행도 배우고 병도 고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십시요.

※ 3333배 특별기도 정진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9시 ~ 일요일 아침 7시

백만불자 108배 만일 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문의전화 031)771-7745 · 6736 (Fax겸용)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